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4.865.243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마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타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자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파
광 주 062.609.1300	바	아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5.2580	평 택 031.651.7701
나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하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차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한국
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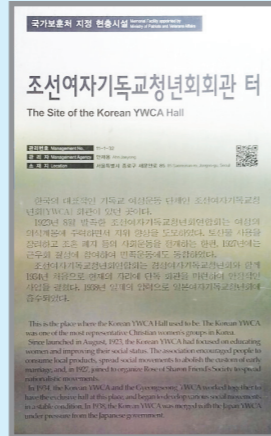
이달의 생각
 평화의 좁은 순례길을 걷는 여성들

특집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

달력 이슈와 동향
 YWCA 10만 회원이 이룬 고리1호기 폐쇄

이달의 한점 ①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총회





새명성약국 오른쪽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 안내판

YWCA OF KOREA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관 터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사회운동
종류	건물
상태	멸실 / 현재 근우빌딩이 들어서 있으며 새명성약국 등이 입주해 있다.
정의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와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YWCA)의 회관이 있었던 곳

관련정보

관련 사건	여성운동
관련 조직	근우회(權友會)/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조선여성동우회
관련 인물	김필례(金弼禮)/유각경(兪珏卿)/김활란(金活蘭)

일제하 대표적인 여성단체 가운데 하나인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는 1922년 6월 제1회 조선YWCA 하령회에서 연합회 기성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 제2회 하령회를 통해 '기성회' 교리표를 떼고 정식 발족한 조선YWCA연합회는 세계YWCA에 회원단체로 가맹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그 사이 서울·평양·선천·광주·함흥·원산 등지에 지부YWCA가, 이화·정신·광주 수피아·개성 호수돈 등 기독교계 여학교에 학생YWCA가 조직되어 1927년 무렵에는 30여 개의 지부를 거느린 전국적 규모의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로 성장하였다. 주요 지도력으로는 초대 회장 유각경을 비롯해 김필례·김활란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조선YWCA연합회는 초기에 강연회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한 여성식 계몽에 주력하다가 점차 토산장려, 금주금연, 공창 및 조혼 폐지 등의 사회운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여성동우회와 함께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으로 근우회(權友會)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1938년 12월 일제의 압력에 의해 일본YWCA에 흡수되었다.

1923년 8월 창립 당시 조선YWCA연합회는 인사동 194번지 태화여자관의 건물 11칸을 얻어 간판을 내걸었는데(현 하나로빌딩 중앙감리교회), 1932년 6월 종로 중앙YMCA 회관으로 잠시 사무실을 옮겼다가, 1934년 1월 서대문정 1정목 33번지에 신회관을 매입해 이전하였다.

지역정보	당시 주소	경성부 서대문정 1정목 33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3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5
	위치 고증	『기독신보』 1934년 7월 11일자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http://sajeok.i815.or.kr/i815/view_region/516)



표지이야기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행사를 마친 후 한국YWCA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활동가들과 실무활동가들이 평화의 조각보 앞에서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한국YWCA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평화의 좁은 순례길을 걷는 여성들 | 한미미
- 05 월레아침기도회 통일의 주인 | 조경열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6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특집**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
 - 08 기획 ①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교토의정서에서 파리 총회로 | 안병옥
 - 10 기획 ②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능하다 | 이상훈
 - 12 기획 ③ 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재각
 - 14 기획 ④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박은경 이사장 인터뷰 | 편집실
- 16 탈핵 이슈와 동향 YWCA 10만 회원이 이룬 고리1호기 폐쇄 | 편집실
- 18 인터뷰 “다양한 색채와 형태, 여성의 힘으로 평화의 조각보 지었다” | 편집실
- 19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Women Cross DMZ)
- 칼럼**
 - 24 평화 나는 왜 걷는가 | 글로리아 스타이념
 - 26 여성 2015년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캠페인 | 김은경
 - 28 청년 통계로 알아보는 여성, 청년, 그리고 노동 | 김난주
 - 30 인터뷰 청년을 위한 기회의 공간, 작은 씨앗이 되는 ‘카페 성수’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 ①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총회 | 송륙희
- 34 이달의 현장 ② 동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방문 | 이혜련
- 36 회원YWCA 모금현장 나눔과 만남, 사랑이 있는 충주YWCA 바자회 | 김애영
- 38 세계YWCA 2014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사건 | 원영희
- 4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세상을 치유하는 기독교 | 이훈삼
- 42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담임목사 | 편집실
- 44 북한어린이돕기·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모금 현황
- 46 연합회 소식
- 48 회원YWCA 소식

7월 한국YWCA 주요일정

- 7월 1일(수)~3일(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YWCA 청년기행
- 7월 22일(수) 4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 7월 24일(금) 생크머니 제2차 기초강사교육
- 7월 24일(금)~25일(토) 돌봄임원 워크숍

제51권 제5호 통권 521호 2015년 6월 1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이경순·황혜숙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1만 2천원(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 (02-730-0746) 인쇄 신우미디어 (031-904-0867)

평화의 좁은 순례길을 걷는 여성들

글 |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 Women Cross DMZ 실행위원)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소식과 함께 35년 만에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갑작스레 우리에게 찾아온 분단의 아픔을 가슴으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해이다. 어느 해보다 ‘평화’의 참 의미를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한국YWCA는 Women Cross DMZ의 평화 순례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Women Cross DMZ는 미국 페미니즘의 선구자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메과이어와 리마 보위 외 30여 명의 평화, 인권, 국제 여성운동가들이 한반도의 평화 곧 세계의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인 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프로젝트이다. 단순히 분쟁지역인 DMZ를 걷는 행사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대신해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나누고자 시작된 평화의 순례길이었다.

그러나 Women Cross DMZ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도, 순조롭지도 않았다. 시작부터 ‘순진한 발상이다’ ‘불가능하다’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악용될 것이다’ ‘남한의 극 보수파들에게 색깔론(친북 혹은 친북)으로 비방을 받을 것이다’ 등 수많은 비평과 비난들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과 냉담한 정부의 태도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국제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비극의 DMZ를 걸을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 한계, 의심 등 어두운 시험의 DMZ를 주님의 이름으로 걷고 있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 7:13~14) 힘들면 힘들수록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임을 확인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 고비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다.

무엇보다 YWCA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에 아직도 그 감동, 감격 그리고 감사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연합회 강당은 마치 작업장을 연상케 했다. 수많은 천 조각들, 조각보와 스카프들, 재봉틀과 다리미, 그리고 분주하게 일하는 실무자들과 위원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또한 전국의 YWCA 회원들이 한 땀 한 땀 평화를 기도하는 맘으로 정성스레 이어나간 평화의 조각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Women Cross DMZ가 국제평화 여성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 북한 여성들도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북에서 남을 종단(Crossing)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분단, 분쟁, 분열을 지워버리고(Cross out), 주님의 사랑인 십자가(Cross)로 ‘평화’의 좁은 순례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주인

글 | 조경열 (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성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간 자리는 뼈가 가득한 자리라 하였다. 뼈가 말랐다고 하는 말, ‘야베쉬’는 이미 시들어 버린, 말라버린 지 오래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없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이 어떻게 하였을까? 그 명령은 해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에스겔을 본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평화와 정의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묵상해본다.

첫째,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는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강한 자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지만 약한 자의 소리는 귀를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애굽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경청하는 마음으로 북한 땅에서 오는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 조건이 붙은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할 만하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감당해야 할 기도제목이다.

셋째, 교류하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기도로 교류하고 실제로 사람이 오고 가야 한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 얼굴을 대할 때 마음이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남과 북이 교류하며 구체적으로 사랑의 돌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무조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 은총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임을 깨닫는다. 영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이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역사에 민감할 수 있는 이들, 바로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거기에 우리가 Y의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YWCA의 회원들이 가진 그 영적감수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란다. 

6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메르스 최초 감염자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난 5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의 다른 바이러스처럼 큰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이 확산되고 한 달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도 불안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이 깨진 상황에서는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과 함께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더 적극적으로 돌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치유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공동의 기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기도하고 염원하고 목놓아 함께 외쳤던 노후원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는 한국YWCA가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생명운동의 과제입니다. 탈핵 캠페인과 서명운동, 그리고 5월 말부터 시작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금식기도에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고, 특히 부산YWCA는 부산 지역 범시민 대책본부를 결성하여 부산과 경남의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는 기도의 힘으로 노후원전의 불을 끈 역사적인 사건이며, 지난 2년간 탈핵운동을 중점운

동으로 채택하고 전국에서 탈핵을 위해 애쓴 회원 YWCA와 시민들의 성과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명동의 YWCA 탈핵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지역의 YWCA 회원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탈핵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70주년인 올해,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조각보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YWCA 회원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평화의 조각보에, 세계의 여성 평화운동가들과 북한의 여성들이 만든 조각보가 더해져 평화의 거대한 조각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제여성 평화걷기(Women Cross DMZ)는 준비의 과정 속에서 한국YWCA 회원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의 세상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노력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서 모든 이들이 실 수 있는 평화의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 믿으며 평화의 조각보 제작에 참여해주신 연합회와 회원YWCA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팔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 모금에 전국의 회원들이 동참해주셔서 모금된 27,627,657원을 네팔YWCA로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구호물품과 약품, 중장기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하여 협력교회들이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특별헌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특별한 가족으로 기억하며 기도해주시는 협력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의 불안으로 6월에 계획된 많은 행사와 일정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회원YWCA의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감사의 고백도 이어지는 6월입니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활기차게 생명의 기운을 지키고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믿고 기독시민운동의 현장을 잘 지키는 YWCA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

- 기획 ①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교토의정서에서 파리 총회로 | 안병옥
- 기획 ②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능하다 | 이상훈
- 기획 ③ 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재각
- 기획 ④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박은경 이사장 인터뷰 | 편집실

교토의정서에서 파리 총회로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총회에서 새로운 기후 의정서(가칭 '파리의정서')를 채택하게 되면,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막을 내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글 |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 앞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지 기늠하는 마지막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5개 국가는 이번 파리 총회에서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시간표에 합의했다.

파리로 가는 길,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파리총회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신기후체제 협상의 타결을 점치는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달라진 태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변화 역할에 자임하면서 기후변화 협상의 고비마다 파워 게임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천명하면서 협상 전망은 낙관적인 분위기로 변한 상태다. 당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에 견줘 26~2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배출량이 늦어도 2030년 이전부터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파리 총회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

는 협상 타결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요국들이 국가이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6년 전 발표했던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92년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66개국의 서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부터다. 기후변화 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을 선진국 그룹인 부속서 I 국가와 개발도상국 그룹인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하여, 부속서 I 국가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선진국들만의 리그였던 교토의정서

1997년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선진국(부속서 I 국가)의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게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유연한 감축수단의 적용을 허용하고, 산림과 토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불참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부속서 I 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이라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제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이 가까워지면서 가열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선진국들만의 감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부터는 개발도상국도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감축 참여 여부는 2007년경부터 선진국의 재정지원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에게 감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성장조차 막으려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리로 맞섰다.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추가 감축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재정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재차 확인되면서 유엔이 주도하는 기후변화협상 무용론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파리 총회와 신기후체제 출범의 의미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붕괴까지 거론되던 분위기

가 반전된 것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이다. 194개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의 적용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 이후 출범시키기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는 당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의무감축 불참을 선언하고 캐나다가 의정서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교토의정서는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더반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고 이에 관한 협상을 늦어도 2015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시간표에 합의한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한 법적 체제 아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감축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 열리는 파리 총회는 더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간표의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파리에서 신기후체제의 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만일 합의에 실패한다면? 기후변화 협상의 고속도로 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한 국가들이 '로드킬' 당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물론 그 여파는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는 탄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는 탈핵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글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2010년 수준의 40에서 70%까지 줄이자.” 최근 독일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의견을 모았다. 2100년까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종식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미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비켜가고자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까지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2000년 기간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났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30% 넘게 증가하고 2035년에도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75%를 유지할 전망이다. 인류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비켜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IEA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부문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오고 있다. 최종 소비와 에너지 전환 부문의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에너지 공급에선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을 활용해야 저탄소 경로를 실현할 수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 중 기여도가 확실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운전 위험 및 관련 우려, 우라늄 채굴 위험, 재정 및 규제 위험, 해결 안된 핵폐기물 문제, 핵무기 확산 우려, 부정적 여론 등이 이용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CCS도 비용과 기술의 문제로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IEA '2℃ 시나리오'(2DS)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여도는 34%로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 전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5%까지 높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비현실적 수준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소비 전력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 중인 독일은 총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2%에서 2014년 27.8%로 크게 증가하였다. 2030년이면 독일은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재생에너지 발전 중에서 풍력과 함께 태양광의 역할이 가장 크게 기대된다. 이미 태양광은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47GW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57GW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4년 태양광 투자액은 1,435억 달러로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잠재량이 가장 풍부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용가능하다. 만약 사하라 사막에 현재 보급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3~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보다 위도가 높아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도 38GW가 넘는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전력소비의 약 7%를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역시 만능은 아니다. 태양광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투자비가 많이 들며 햇빛이 비출 때만 전력을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의 단점은 보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태양광 산업은 이런 단점을 빠르게 극복해가고 있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향상되면서 단위 용량당 태양광 모듈의 크기는 점차 작아지고 벽면이나 제품 표면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전지도 개발되고 있다. 한국태양광 산업협회에 따르면 건물 지붕과 활용성이 낮은 토지의 극히 일부만 이용을 해도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34.5GW의 설치가 가능하다. 지붕과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임야의 약 0.5%, 밭의 0.28% 정도를 활용하는 수준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체 농경지의 2%를 활용하되 임야는 제외하는 등 조건을 달리하여 태양광 설치가능 용량을 추정한 결과 국내에서 114.3GW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은 과거에 매우 비쌌지만 이제는 아니다. 2000년 초반 하더라도 국내 태양광의 발전원가는 700원/kWh에 달했지만 지금은 20년 수명을 고려하면 150원/kWh 이하로 낮아졌다. kW당 설치비는 200만 원 이하로 10여 년만에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독일 정부가 정한 태양광 전력의 구매 가격은 8~12 €/cts(유로센트)/kWh에 불과하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인 28€/cts(유로센트)/kWh 정도이니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싸게 집에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중동, 칠레 등 일사량이 좋은 지역에서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는 kWh당 100원 미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은 비싸다는 건 곧 옛날 얘기가 될 것이다.

태양광은 햇빛이 비출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은 실시간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는 전력시스템에서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하지만 풍력에 비해 태양광의 변동성은 일정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태양광 전력생산량의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이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낮 시간은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시간대라 첨두부하 대응에 효과적이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전기차(V2G) 같은 에너지변환장치 등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로 전력시스템은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중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유럽에서 신규 발전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햇빛이 비추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태양광 시대로 접어들었다. 관전 포인트는 변화의 속도일 뿐이다. 

혁신과 실험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이루자

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본다.

글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후쿠시마 핵사고와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위험하고 더러운 핵발전과 화석발전 중심의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을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분산적인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경향을 멈추는 일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반의 폭넓은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의 거의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 에너지 시스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안을 공개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9년까지 전력 수요량이 매해 3%씩 증가할 것이며 이를 공급하기 위해 총 13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폐지하거나 줄여가기로 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역지로 떠밀려 발표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만이 그나마 위로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 주장과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이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민간 전문가들만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전력정책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결과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다. 6월 안까지 결정하겠다는 7차 계획을 6월 8일에야 공개하였다. 그리고 6월 18일에 한 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할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지자체는 에너지정책에서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시민사회는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을 고집하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소규모 분산적인 전력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모 전력설비를 확충하고

전력을 더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전력산업과 다르게, 전력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지역 공동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는 에너지 전환의 강력한 옹호자인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선도자이다. 시민사회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펼치면서, 시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행동에 참여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성대골과 같은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서 나서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30여 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금을 모으고 지역 분산적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을 건립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여 태양광보다 큰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주민풍력의 실험도 제주도 등지에서 모색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혁신과 실험은 에너지 전환을 전면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한편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받아 왔던 지자체들도 이제 변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부산과 충남은 현행 전력 시스템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위험천만한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이를 대신할 풍력 발전 단지 건설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충남도는 전력소비가 많지도 않지만 석탄화력 발전이 몰려 있어서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전기사용의 이익을 얻고 있는 지역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라

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로부터 벗어나 ‘에너지 주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극적인 변화도 있다. 지역과의 상생을 고민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전력 자립도를 높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너지 진단사를 교육·훈련시켜 각 가정과 상점들의 에너지 효율을 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발전업자들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을 확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도 전력자립도를 50%로 확대한다는 구상 아래 에너지독립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LNG 복합발전을 적극 확대하면서 지역분산적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그 이익을 지역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다른 생각과 노력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에너지자립의 목표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그간 전문가 중심으로 작성되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폭넓은 시민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 역시 노원, 완주, 순천과 같은 사례와 같이 자체적인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나갈 지역에너지공사와 같은 기구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매년 이 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된 통영RCE재단 박은경 이사장을 6월 5일(금)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관에서 만났다. (정리: 편집실)



세계물포럼 '여성과 물' 세션에서 연설하는 박은경 이사장 (제공: 환경미디어)

이곳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5월은 한국에서 거대 세계대회가 두 개 열렸어요. 제7차 세계물포럼(WWF)이 4월 12~17일까지 대구(경북)에서 열렸고, 세계교육포럼(WEF)이 5월 19~22일에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통영RCE재단은 지난 5년여 간 건설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센터의 개막식과 국제 라운드테이블이 WEF에 연이어 5월 23일 열렸습니다. 26~27일에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ESD의 세계흐름인 전지구적실천프로그램(GAP)의 주요 파트너 1차회의에 참석했어요. 5월 28~31일에는 스코틀랜드 세계수자원학회(IWRM)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정신없이 서울 밖을 오간 시간들이었네요.

마침 이렇게 환경의 날에 뵙게 되었습니다.

세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1970년대 초부터 일부 선각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72년 유엔이 처음으로 인간과환경회의(UNCHE)를 스톡홀름에서 열었고, 동시에 세계지성인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같은 해 출간되었지요. 유엔 중심의 환경과 개발 관련 회의는 매 10년마다 열리면서 2012년 리우+20 회의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2030년까지 이루어 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이번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환경의 날도 1972년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어서, 그 다음해부터 이행되었고, '의제 21'은 1992년 리우 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지속가능발전의 교과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UN을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전지구적 의제를 가지고 지난 40여 년간 70억 세계인이 동참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통영RCE재단) 이사장으로 계신데 지난 5월 23일 통영RCE 세자트라 숲 센터 개관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엔 사업에 UNESCO와 UN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만평 대지에 1,400평 규모로 지어진 통영RCE센터는 유엔대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역전문가센터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전 세계 135개, 국내에는 인천, 울주군, 인제, 창원, 통영시에 RCE가 있습니다. 통영시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세계 8번째 RCE로 지정되어 지난 10년간 통영시 교육청과 함께 통영시의 교육기관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심고, 통영시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발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세자트라(Sejahtera)'는 말레이시아어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으로 공존을 뜻합니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는

GAP(Global Action Programme)를 통해 정책지원 기관 통합적 접근, 지도자 연수, 청소년, 지역사회 각 분야에 실천 활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20개 기관을 선정해 파트너 기관(key partner)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통영RCE 세자트라 센터가 이 중 '지도자 연수' 분야 20개 파트너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통영RCE는 전 지구적 연대 속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영RCE 재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UN 대학교 고등교육원에서 RCE 사업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그곳 이사였던 저에게 한국에서도 한 곳을 추천하라는 부탁을 받았던 차 우연히 방문하게 된 통영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반해 버렸어요. 당시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설명을 하니 처음 보는 사람이 지속가능발전, RCE 등 처음 듣는 소리를 하니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두어달 후 연락하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합작으로 준비해 UN 대학의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어떤 이슈이든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지역 사회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학교,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일에 나서면서, 통영의 중고교생을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전 세계 RCE를 찾아 또래들과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브릿지 투 더 월드(Bridge to the World)'는 이제 세계 명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세계물포럼에서도 큰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일, 알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하지요. 나는 물 전문가도 아닌데 2005년 한국물포럼 부총재로 와 달라는 제의를 받아들인 후 물 관련 일에 접목되었어요. 그 후 한국물포럼 총재로서 마르세이유의 세계물위원회 여성 최초의 집행 이사,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하면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물포럼을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땅 소유권 중에 여성이 가진 재산권은 2%밖에 안 되니, 물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과 관련된 일의 80%를 여자들이 하는데 정책결정직에는 못 들어가는 여성의 위상을 재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도 에너지 감축에서 이제 홍수, 가뭄, 쓰나미, 산사태 등의 모든 재난의 중심이 되는 물 문제를 기후변화의 적응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라는 '2050 환경 전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국인들도 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가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식량부족으로 올 것입니다. 여성들은 물이 가진 생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계가 나서서 물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YWCA에서는 환경운동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YWCA 사무실에서 먼저 실험해본 것이 쓰레기 종량제였어요. 사실 그 아나바다 운동도 Y에서 만든 단어인데, IMF 이후 사회에서 공용하는 보통사람같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YWCA가 생명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지속적으로 애써줘서 고마울 따름이지요. 탈핵 운동도 대안과 더불어 지역에서 끈질기게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만들어내고, 전국 10만 회원들이 모두가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YWCA는 많은 지도자들의 지도와 외침 속에서 역사와 조직의 외적인 강건함이 돋보이지만, 지금보다 더 Y 내의 지도력을 귀히 여기는 공존의 가르침을 배우길 바랍니다. 기도 속의 가르침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와 논조로 비난의 소리를 서슴치 않는 지도력들은 이제 숲의 뿌리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곤궁에 처한 가는 뿌리에게 효모균을 힘차게 보내서 푸르고 울창한 숲을 만드는 공존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YWCA 10만 회원이 이룬 고리1호기 폐쇄



지난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안을 발표했고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 중 하나인 고리1호기는 38년만에 폐로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도 한국 탈핵의 길은 갈 길이 멀다. (글: 편집실)

2014년부터 2년째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중점 운동으로 선정,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외치며 캠페인을 펼쳐 왔다. 매주 화요일 연합회와 전국 52개 회원YWCA는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

특히 올해 2월에는 YWCA 10만 회원 서명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달하여 고리1호기 폐쇄 공약을 이룰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부산YWCA는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범시민운동본부'의 대표단체로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수원의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신청기한인 6월 18일까지 정부 세종청사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6월 8일, 부산범시민운동본부, 한국YWCA연합회와 회원YWCA,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8백만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최대 민생문제"이며 "이를 위해 산자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며 호소했다.

이어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명동 롯

테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범시민운동본부는 에너지위원회가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매체를 통해 전달됐다.

연합회와 회원YWCA는 그 이후로도 탈핵 캠페인과 더불어 613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탈핵운동을 펼쳐나갔다. 연합회와 회원YWCA(고양, 남양주, 부천, 서울, 성남, 수원, 안산, 의정부, 춘천, 하남)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회'를 담당하면서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며 탈핵 운동을 향해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었다.

고리1호기 폐쇄는 시작일 뿐이다. 노후 원전 1기에 대한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 소식을 들으며 조삼모사적인 정부의 원전 정책 앞에서 절망하기는 이르다. 고리1호기 폐쇄를 계기로 한국YWCA는 신규 원전의 건설과 노후 원전 폐로에 얽혀 있는 예산 문제에 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핵폐기물 문제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고리1호기 폐쇄로부터 시작된다.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한국YWCA 성명서

고리1호기 폐쇄 결정,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중단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12일 정오부터 열린 정부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10년 재연장을 포기하고 폐로할 것을 한수원에게 권고하는 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커다란 기쁨과 함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고리1호기를 멈추게 했다는 역사적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 운동의 한가운데서 한국YWCA연합회 또한 2014년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전개해오면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2월에는 부산YWCA와 동부지역YWCA, 그리고 전국의 52개 회원YWCA들이 전국 각지 시민들과 함께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10만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고리1호기 폐쇄 공약으로 당선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리1호기 폐쇄와 핵발전소 없는 생명세상을 염원하는 YWCA 10만 회원들의 간절한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설계수명 30년이 다한 후에도 연장가동하여 수많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왔던 고리1호기의 10년 재연장 포기 결정은 뒤늦은 결정이긴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의 고리1호기 폐쇄 염원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고리1호기 폐쇄' 방침으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신규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도, 메르스 확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로와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0년 연장기간인 2017년 6월까지 위험한 재가동을 계속하기보다 지금 곧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로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폐로, 재연장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핵발전소 안전 논의기구를 새롭게 만들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은 결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가동과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용인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폐쇄를 계기로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분산적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생명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우리 YWCA 10만 회원은 오늘의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핵발전소 없는 평화세상, 생명세상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12일
한국YWCA연합회

“다양한 색채와 형태, 여성의 힘으로 평화의 조각보 지었다”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의 시선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던 것은 평화여성들의 ‘백의’에 둘러진 ‘평화의 색동스카프’였다. 한국인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흰옷에 곱게 둘러진 색동스카프, 국제평화여성팀들과 그들을 맞이하러 나간 300여 명의 ‘평화맞이단’은 모두 평화의 색동스카프를 목에 둘러졌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초록의 야외무대에서 단연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방 10미터로 제작되어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평화의 조각보’였다. 평화의 조각보는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한 땀 한 땀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으며 총 750여 명의 숨결로 만들어진 100개의 조각보를 이어 만든 것이었다.

평화의 색동조각보의 디자인을 제안하시고 제작 책임을 맡으신 박영순 위원님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 사업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러던 중 YWCA가 국제여성 평화걷기대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년간 일반인들이 걸어보지 못한 그곳을 국제여성들이 북에서 남으로 걸어와 남한 여성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와 국제회의를 연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이었어요. 제작 과정은 언제나 창의성과 집중력을 요구하고, 대형조각보에 어떻게 WCD가 세계에 전하려는 평화의 염원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연세대 생활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면서도 ‘생활 속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늘 생각한 저는 이 행사에 시각적인 상징을 고민하였고 분단 70년동안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남과 북이 모두 여전히 ‘평화롭고 복된 삶’을 기원하며 각 가정에서 침구와 한복으로 사용하

고 있는 ‘색동’에 착안하여 이 조각보를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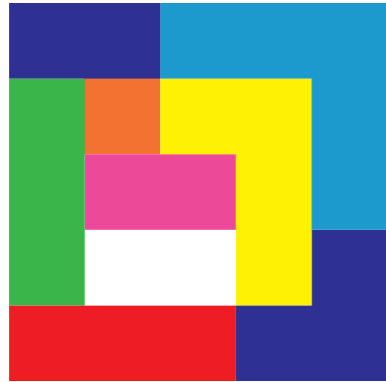
평화의 조각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전통의 오방색(청, 적, 황, 흑, 백)이란 5가지 색깔에 그 각각을 섞어만든 오간색 즉 녹색, 벽색(하늘색), 홍색(진분홍), 유황색(진노랑), 자색입니다. 전통 색동에는 오방색과 오간색이 어우러지는데, 평화의 조각보에는 10가지 색상 중 검정색을 뺀 9가지 색상으로 모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화평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작기간에 맞춰 하나씩 도착하는 조각보에 감격하기도 했어요. 조각보 디자인은 기본모듈이 되는 가로 세로 1미터에서 20센티미터를 5칸으로 구성하여 가로세로의 비율을 1대1, 1대2, 1대3, 1대4, 1대5 비율까지로 다양화된 크기와 9가지의 색상으로 구성했어요. 전체 100개 조각보 어느 하나도 같은 디자인은 없습니다. 창작자로서 조각보 구성을 재발견하며 작업했는데 10미터로 크기가 정해진 후 30년간 조각보 디자인을 연구한 그 마음으로 이틀밤을 꼬박 새워 100개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박교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에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의 마음이 담겨, 다양한 바느질 솜씨와 다양한 색상, 다양한 패턴이 한데 어우러져 통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어요. 앞으로 다가올 통일도 그렇게 다른 요소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질적인 원색들이 모여 혼합색을 이루듯 평화통일 또한 남과 북의 다양한 요소와 색상, 형태, 생각들이 하나의 조각보처럼 이어질 것이라 믿어요. 평화와 통일은 그 각각의 조각보를 잇는 것은 인내와 세밀한 손길로 엮어 내는 ‘여성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 편집실) 

평화의 조각보 함께 만들기



copyright © 박영순

평화의 조각보에는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감수성을 갖는 여성들이 나서서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바람과 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다. 일생 동안 어려운 일을 물리치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맞이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색동이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이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는 것에 착안하여 기획된 작품이다. 한국의 전통 오방색(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과 오간색(감청, 보라, 분홍, 녹색, 연두색) 중 음의 색인 검정색을 제외한 9가지 색으로 만들어진다.



참여해주신 한국YWCA연합회,
전국 회원YWCA와 YWCA어린이집,
부속시설에 감사드립니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주YWCA, 광주YWCA어린이집,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목포YWCA어린이집, 부산YWCA, 부산YWCA진구어린이집, 부천YWCA,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천YWCA, 서천YWCA, 성남YWCA어린이집, 속초YWCA, 수원YWCA체육문화센터, 순천YWCA, 안산YWCA, 안양YWCA, 원주YWCA어린이집, 익산YWCA, 인천삼산복지관,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어린이집,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파주YWCA, 포항YWCA

함께 해주신 은학의 집, 광양YWCA, 김해YWCA, 마산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성남YWCA, 세종YWCA, 수원YWCA, 안동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어린이집, 창원YWCA, 충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하남YWCA에 감사드립니다.

Women Cross DMZ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행사가 5월 24일(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다. 이 날 무대 앞에 걸린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의 '평화의 조각보'는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인 박영순 연세대 명예교수가 재능 기부로 디자인했다. 총 천 개의 조각으로 사방 1미터의 조각보 100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중앙의 사방 4미터에 해당하는 16개의 조각보는 해외 여성과 북한 여성, 다문화여성이 함께 만들어 평화의 염원을 조각보에 담았으며 한국YWCA와 전국 회원YWCA, YWCA어린이집, YWCA 부속시설과 여러 여성단체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 날 오전 11시,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남한에 도착한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넨,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 보위 등 한국전 참전국 12개국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은 DMZ 분단 철책선을 걸으며 평화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편, 회원YWCA에서 온 회원들을 포함한 1,945명의 걷기대회 참가자들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걷기에 동참했다.



평화기원 문화행사가 오후 3시부터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남북한 평화의 새 장을 열어 평화세상을 만들고 그 울림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평화의 기원이 울려나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열림, 살림, 울림'을 주제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낭독한 후, 경기지역 회원YWCA가 함께 한 평화합창단 공연이 이어졌다. 모든 참가자들은 평화의 색동 조각보 스카프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다.

Column

컬럼

• 평화 나는 왜 걷는가 | 클로리아 스타이넴

• 여성 2015년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캠페인
| 김은경

• 청년 통계로 알아보는 여성, 청년, 그리고 노동
| 편집실

나는 왜 걷는가?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대회가 열린 5월 24일(일) 다음날인 5월 25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5 국제여성 평화회의가 열렸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넴이 자신의 경험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날의 기조발제를 번역하여 읽는다. (번역: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글 | 글로리아 스타이넴 Gloria Steinem (Women Cross DMZ 공동명예위원장)



이 평화 걷기에 참석하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나이와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 따라 한국 전쟁과 비무장지대라고 불리는 이 좁고 긴 땅에 의해 갈라진 사람들을 달리 기억한다.

우리는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한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 ‘한반도 여성 평화 걷기(Women Cross DMZ)’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 리마 보위를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 12개국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평화걷기 참가자들은 분단으로 빚어진 참혹한 이산가족의 결함을 위해, 공적 투자를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 복지 향상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도록 촉구하기 위해 걷는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종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걷는다.

이 평화 걷기에 참여하는 여성 중 가장 연장자로서 유년 시절에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과 고등학교 시절 한국 전쟁에 징집될 뻔 했던 같은 반 친구 중 한 아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였는데, 그 전쟁에서 너무 참혹한 것들을 경험한 터라, 한국 전쟁에 아들을 보내는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이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U보트가 상당한 두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한국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 미국 해병가에 잠수함이 다시 정박할까 염려하며 엄마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떠오르기도 한다.

나는 한국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나의 이런 고통은 교전국의 국민들이었던 여러분의 고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떤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분단은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과 분단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 미 대륙의 최초 정착민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단 하나의 폭력 피해를 치유하는데 무려 네 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나는 작은 지지를 보이기 위해 이 평화 걷기에 참여하고 싶었다. 4년 전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측의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기차역에 가보았다. 그 기차역은 희망의 상징이지만, 텅 비어있고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그곳에 올라섰을 때 나는 건너편과 얼마나 가까운 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너무 가까워 건물들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미국의 역사를 볼 때 내전으로 분단되어 가족들이 헤어지고 나라의 중간이 사각지대가 된 적이 있었다. 만약 그 상태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면, 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도우려 해주기를 희망했을 것 같다. 만약 우주에서 지구의 사진을 본다면, 우리 모두는 허술한 우주선의 탑승객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성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문화적 이유들로 혹은 인위적인 성별 분리로 우리 여성

에게는 증명해야 할 ‘남성성’이 없으며, 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훨씬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종교와 지역의 경계선을 넘고 폭력을 멈춘 것이 여성이었다. 유년 시절을 기억해볼 때 아일랜드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아일랜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라이베리아에서도 여성이 다양한 종교와 반군들을 단합시켜 평화로운 선거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근대 국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연구에서 배운 것을 말하고 있다. 한 나라 안의 폭력적인 상황이 나 다른 나라에 대항하여 군사적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그런 폭력에 대한 빅 데이터가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가난이나 천연자원, 종교 또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실제로 어느 곳이나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우리가 처음 보았던 폭력이 모든 지배와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일상적인 폭력은 한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를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비무장지대를 통한 여성의 평화걷기는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사이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경제적 계층 사이의 평화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하는 수단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리킨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행동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말과 행동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연약한 지구라는 우주선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녀임금격차해소'를 향한 또 한 걸음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비롯하여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여성계의 노력이 올해로 3년을 맞는다. 2013년 11월, '국회의장(강창희 국회의원) 여성아동미래비전전문위원회(위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보고서'를 토대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14년 5월 26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10월 소녀의 날을 기념하여 '소녀들을 위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과 함께 '빨간가방들기 연중캠페인'을 실시했다.

글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2015년 5월 현재 발의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올해는 법제정을 위한 단기 목표도 중요함과 동시에, 법제정 이후 또는 법제정 여부와는 별도로 차별적 임금 해소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력 확보와 세대 간 문제 인식 공유라는 중장기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2015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는 첫째, 운동력 확보를 위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문가의 현황 분석과 과제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워크숍'을 기획했으며, 둘째, 여의도와 광화문, 종각에 이르는 대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일임금의 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카드 발송과 특별히 법안발의에 참여한 12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와 37%의 남녀임금격차를 알리는 인증샷을 찍어 SNS를 통해 홍보하는 고용평등주간 캠페인

'5월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37%로 가장 크고 뉴질랜드가 6%로 가장 적다. 이는 한국에서 남성 전일제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 전일제 근로자는 63만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뉴질랜드는 남성 전일제 근로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 전일제 근로자는 94만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OECD 통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12년 10년간 성별 임금 격차의 변동은 한국은 2%p 줄어든 것에 그친 반면, 아일랜드(201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 8%)는 같은 기간 11%p까지 좁혀졌다. 2014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남녀 근로자 근로시간은 남성이 43.1시간, 여성이 39.4시간이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금 상승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우 일을 하여도 육아와 가사,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여성 근로자는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위하여



5월 23일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참가자들.

근로시간이 짧은 고용조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임금근로자 100명 중 39.9명은 비정규직이며 17.5명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또한 여성임금근로자 100명 중 4.6명은 초단시간근로에 종사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여성이 1424천명, 남성이 763천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 65.1%가 여성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수는 2014년 기준 378천명으로 삼십 만명이 넘는 여성근로자가 근기법의 제외 근로자로서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밖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2014년 남성초단시간근로자는 142천명으로 여성의 절반 이하이다).

이 날 열린 '정책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차별 임금, 저임금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거리캠페인'을 통해 대다수의 여성, 그리고 남성들이 한국사회의 엄청난 성차별적 임금에 관해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동일임금의 날'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주관단체인 행동하는여성연대를 비롯하여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래여성네트워크, 한국모자보건학회, 역사여성미래 등 2014년부터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물론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국민사랑의회, 다른세상을준비하는다른청년정책연구소,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등 2~30대 청년들이 이끄는 단체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보다 크고 활기찬 목소리로 동일임금을 외칠 수 있었던 소중한 한 해로 평가된다.

임금차별의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그 누구보다도 2~30대 젊은 층에게 던져진 가장 절실한 현실 문제인 만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문제인식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운동력 확보는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는 행동 속에 문제와 대안을 찾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힘이 발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보다 2015년의 발걸음이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세대 간, 남녀간 연대를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해보다 더욱 더 커진 목소리와 함께 힘찬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YWCA

통계로 알아보는 여성, 청년, 그리고 노동

5월 27일(수) 열린 제3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에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한 내용 중 여성, 청년, 그리고 노동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싣는다. (정리: 편집실)

글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2015년 4월 고용동향 발표에 의하면 15~29세 청년 실업율이 10.2%로 4월 수치로만 볼 때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이 고용절벽에 직면하였다는 우려를 표하는 소리가 높다. 2015년 2월엔 청년실업률이 11.1%로 1999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 현황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26.5%가 되었다. 여

성은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은 것과 동일하게 청년층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다만 청년층은 남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30%대로 남녀 청년층의 비정규직 격차는 남녀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격차에 비해 작다.

또한 남성은 청년층에서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0대 이후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이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여성들은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에서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5.3명이,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10명 중 6.5명이,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7.1명이,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2명이 여성근로자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정규직의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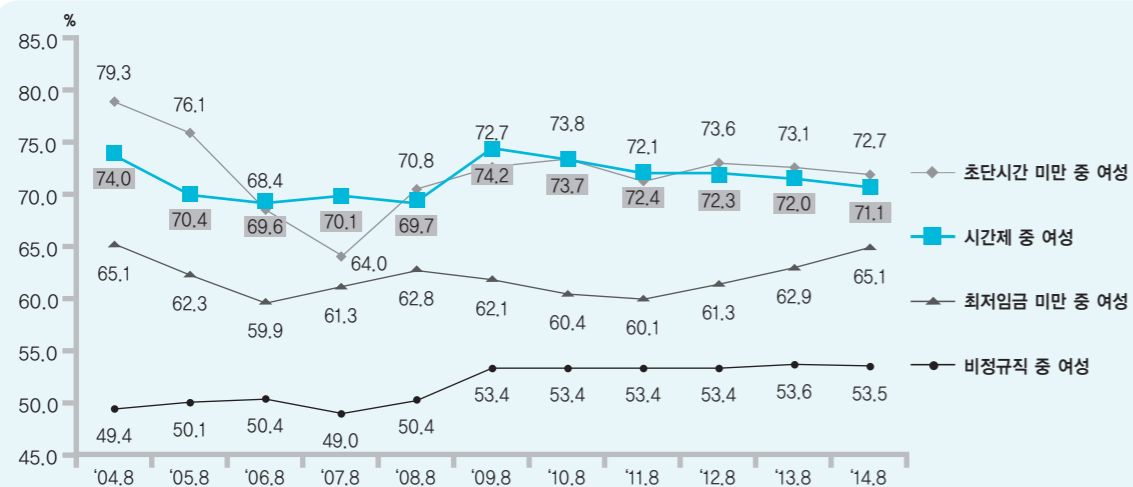
15~29세 청년층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이 121.8만원, 여성은 107.6만원으로 여성 청년층의 임금은 남성의 88.3%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15~19세가 남녀 모두 가장 낮고 이어 20~24세, 25~29세 순서로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15~29세 남성이 34.4시간, 여성이 29.3시간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 53.7만원, 여성 48.5만원으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金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최저 임금 이상 근로자간의 격차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 최저임금 근로자가 33.9시간으로 남성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35.2시간에 비해 1.3시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여성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9.9시간, 여성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29.8시간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0.1시간에 불과하였다. 이는 월 평균 임금과 주 평균 근로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 집단이 최저 임금 이상 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초단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이 62만원, 여성이 52.5만원으로 초단시간 이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초단시간 미만 근로의 특성이 반영되어 남성은 주 평균 8시간, 여성은 8.8시간으로 초단시간 이상 근로자 집단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남성은 21.4%, 여성은 26.3%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았다.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 김난주,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2015.5.23., 국회의원회관) 발표 자료

<그림> 여성근로자 비율

		(단위: 만원, 시간)	
		월평균 임금	주 평균 근로시간
남성	합계 (15~29세)	121.8	34.4
	15~19세	60.7	25.7
	20~24세	93.8	32.2
	25~29세	163.8	38.6
여성	합계 (15~29세)	107.6	29.3
	15~19세	53.8	22.9
	20~24세	92.0	28.4
	25~29세	151.6	33.3
최저임금미만	남성	53.7	33.9
	여성	48.5	29.9
최저임금이상	남성	140.9	35.2
	여성	122.8	29.8
초단시간미만	남성	62.0	8.0
	여성	52.5	8.8
초단시간이상	남성	128.7	37.4
	여성	118.5	33.4

<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세전) 및 주 평균 근로시간

1) 초단시간 미만 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청년을 위한 기회의 공간, 작은 씨앗이 되는 '카페 성수'

학교법인 청강학원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청강대)가 지난 5월 15일(목)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골목에 '카페 성수'를 열었다. 30년된 주택을 개조해 만든 공간에서 한국YWCA연합회 인사위원회와 장학위원회 위원인 이수형 청강대 학장을 만났다.

(정리: 편집실)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월간(한국YWCA)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13년 동안 청강대 총장으로 있다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잠시 학교를 떠나있었다가 다시 학교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새로이 열게 된 이 공간 '카페 성수'도 그런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카페 성수'의 공간 구석마다 상당한 고민의 흔적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곳은 카페이면서 교육과 소통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하와 1층은 보시다시피 카페로 운영되고, 1층에는 독립출판 인디서점인 '플라워팻북'을 운영하는데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만든 소량의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엄연한 출판사입니다.(웃음)

하루 한 테이블만 예약이 가능한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청강대 교수님이 직접 제안해 주신 덕분에 운영하고 있고, 만화과 교수님은 '웹툰 그리기 클래스'를 하고 계시는 등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세요. 주말에는 마당에서 플리마켓이 열리는데 청강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민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층 공간에서는 프랑스식, 한식, 베이킹 등 다양한 쿠킹 클래스가 열리며 지인들을 초

청해 흥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카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카페를 생각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에서였어요. 이대 쪽에서 책을 같이 모여 읽는 낭독모임에 참석했었어요. 머리가 벗겨진 지긋한 아저씨도 그 밤에 술 마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책을 읽고 계신 모습에서 굉장한 문화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가까운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내년이면 청강대가 개교 20주년이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학위를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학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요. 결국 학교가 더욱 유연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대안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카페 성수'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대학이라는 시스템에서 뛰쳐나온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정대학 등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하자고 해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공간에서의 교육과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곳은 일종의 테스트 공간이기도 합니다. '카페 성수'의 시그니처 메뉴가 '플라워팻브레드'인데 화분 안에 빵이 담겨 있는 귀엽고 재미난 모양이지요. 이 공간이 작은 씨앗이 되어 청강의 문화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이나면 이것을 청강대로 옮겨 심고(transplant), 또 거기서 우거지면 다른 곳으로 또 다시 옮겨 심는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강대가 그런 면에서는 사회를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 일도 그렇고 지금의 '카페 성수'도 그렇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부친은 남양알로에(현 유니베라) 창업주고 이연호 회장, 모친은 연합회 정희경 명예연합위원이자 청강대 이사장)께서 굉장히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두 분은 이 사회에 진 빛이 많기 때문에 늘 그 빛을 갠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는 기업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돈을 벌면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YWCA의 대학청년운동이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운동성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Y의 청년운동이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기 위해

제안을 주신다면요.

사실 요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입식 입시교육을 받다보니 밖으로 나왔을 때 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내공이 없는 것이죠. 내공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Y를 찾아오는 청소년, 청년 회원들에게 '여기에 왜 왔는지, 네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졸던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줄을 모르니 대학 와서도 졸고 있어요. 유약한 아이들을 키워낸 건 결국 학부모와 교사들, 교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청년Y가 되어서 이런 의미를 찾아주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늦은 것 같고 Y-틴 친구들에게부터 "Y니까 할 수 있어", "Y에 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로 짐을 얹어주지 말고, 좀 더 그 아이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느리게 가도, 많이 야단을 맞아도, 정말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Y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청강이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며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은 '여기는 참 무엇이든 제대로 하시네요'라는 말이었습니니다. 효율성을 따졌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우리의 역량 하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YWCA도 그런 청년운동을 펼쳐나가기 를 기대해 봅니다. 🍀



함께 꿈꾸는 YWCA 돌보미 회원들

5월 14일(목)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년 반동안 돌봄협동조합을 위해 노력해온 부천YWCA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 송록희 (부천YWCA 사무총장)



지하철에서 흔히 이러한 광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5명만 모이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협동조합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 교육, 설득, 준비 과정이 필요한 고도의 조직화 과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가진 돌보미 회원들을 그들 삶의 주인공으로, 노동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전체 돌보미 뿐만 아니라, 돌보미를 대표하는 임원들을 장차 협동조합의 발기인, 이사, 이사장 등의 임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야말로 보통일이 아니다. 돌보미 뿐이라. Y 실무자들이 가장 맡기 꺼려한다는 돌봄사업의 담당실무자와 나 자신을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활동가로 준비시키는 것도 큰 일이다. 또 하나, Y의 수익감소까지 감내할 수 있는 Y이사들의 이해와 조직적 결단 또한 필수로 요구된다.

돌아보니 꼬박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 2013년 1월 ~ 현재 : 돌보미 전제교육(매월 1회)
- 2014년 8월 ~ 현재 : 돌보미 임원교육(매월 1회)
- 2013년 ~ 현재 : 실무자 교육(협동조합 회계, 세무, 노무, 설립 과정, 경영과정)
- 2014년 7월 8일 : 부천Y 정기이사회: 돌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TFT구성(돌봄임원4명, 최순영이사, 사무총장, 실무자 포함 총 7명)
- 2015년 3월 31일 : 발기인회 출범(발기인 6명)
- 2015년 4월 30일 : 설립동의자 모집(총 50명:생산자조합원 46명, 후원자조합원 3명, 직원조합원 1명)
- 2015년 5월 14일 :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5년 5월 15일 : 설립신고

우리는 매월 1회 돌보미 전체를 대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돌보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이라면 뭐든지 시도했다. 나 사랑하기, 너 사랑하기, 우리 사랑하기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해 보기도 하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갱년기 돌봄노동자의 내뭉

돌보기, 나 이해하기, 노동하는 나 사랑하기, 직업인의 자세, 웃음치료, 공동체 워크숍,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돌봄노동의 가치 깨닫기, 협동조합 기초교육, 협동조합 설립교육 등 참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돌보미 교육을 준비하면서, ‘과연 임원들이 일마치고 와서 밤늦게까지 이 어려운 <깨어나라 협동조합> 책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개선방안을 설명하면 돌보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4대보험을 기피하는데, 과연 돌보미들이 받아들일까?’ ‘협동조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까?’ ‘조합원이 되면,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사업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여태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과연 내려줄까?’ 등등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우리들 앞에 쏟아졌다.

그러나 긴 교육의 과정을 지나는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돌보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다. 돌봄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안다. 협동조합을 꿈꾸는 전국의 동료들이여, 이것을 꼭 기억하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돌보미가 아니라 어찌면 우리들 자신일지 모른다.

협동조합 운동에 완료형이란 없다. 이제 첫걸음을 뒀을 뿐이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경험해보지 않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겠지만, YWCA의 돌봄정의운동과 돌보미의 손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배우고 고민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창립까지 기도와 물질로 적극 지원해주신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결사체,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한줄 인터뷰

“창립총회날,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라 떨리더라고요. 실무자가 써준 총회 시나리오를 일하는 집에서 산모랑 아기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소리내서 연습했어요. 산모(부천시청 공무원)가 나와서 하는 말, 시의원보다 더 잘하시네요~ 제가 앉아서 들어드릴게요. 연습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김숙환 산모돌보미 회장/협동조합 이사장)

“피곤하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교육에 참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협동조합 책이라도 기꺼이 내 돈 내고 사서 읽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하루 일당도 포기할 수 있는 책임감 넘치는 돌봄 임원들과 조합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Y가 후원자 조합원으로서 늘 협력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김영순 부천Y 회장)

“<깨어나라 협동조합> 책이 어려웠어요. 읽어도 그 줄이 그 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 읽듯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임영란 살림돌보미 부회장/협동조합 이사)

“내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사업주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날마다 젊어지는 느낌이야.”
(박옥희 살림돌보미 회원/조합원)

“예전에 Y가 가사이용료 올렸다가 한동안 일감이 떨어져서 무지 고생한 적 있어요. 조합원 위한다고 임금을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김영숙 살림돌보미 회장/협동조합 이사)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돌봄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명시한 우리들의 ‘목적문’이다.

보육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야간보육서비스 제공해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저출산이 오히려 아동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빈민지역이나 농산어촌 등은 복지사각지대인 동시에 보육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글 | 이해련 (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YWCA가 운영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이러한 보육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5년 현재 제천, 동해, 파주, 하남지역에 5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북부의 발한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 YWCA 건물 2층에는 예쁜 20여명의 아이들의 보육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있다.

갓 스무살을 넘긴 아직 어리기만한 대학생 부모의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엄마가 집을 나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 항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느라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아빠의 아이. 이 아이들이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과거 동해시의 수산업 호황기에는 동해 북부지역의



인구가 15만명에 달했지만, 최근 수산자원 등의 감소로 수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9만여 명으로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마저 없는 터라 현재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묵호동과 발한동은 동해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어민 거주 지역이다. 이 지역의 부모들은 대부분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 또는 수산관계의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실제로 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60% 이상이 조부모 및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기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보육 콘텐츠 제공 역시 더욱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촌지역 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많이 발생된 저소득층가정,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위기 가정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고, 또한 이들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6월 24일부터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가 운영되고 있다.

야간보육서비스로 지역사회의 보육 울타리가 되다.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이보라 센터장은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동해시 관내 취약보육시설 13개소 중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인 오후 1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동해 북부지역에 3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많은 아이들이 보호자들의 귀가 시까지 방치되고 있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교육이 한창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육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어촌 지역사회에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꼭 필요한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며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 콘텐츠를 접하게 하는 배움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동해 지역사회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하리라 기대해본다. 

나눔과 만남, 사랑이 있는 충주YWCA 바자회

글 | 김애영 (충주YWCA 부장)



며칠 전 충주YWCA에 전화벨이 울렸다. “바자회 언제해요? 쌀이 떨어져 가는데, 바자회 기다렸다가 쌀을 사려고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회원의 목소리는 활기차기만 하다.

충주YWCA의 사랑나눔 바자회는 그야말로 회원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기다리는 바자회로 자리매김되고 있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도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누군가 충주YWCA에서 회원 모두가 함께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뭐냐고 물으면 단연코 매년 가을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펼쳐 놓는 사랑나눔 바자회라고 모두가 이야기한다.

지역의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

충주YWCA의 바자회는 2005년부터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지역의 먹을거리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좋은 농산물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YWCA의 생명살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어떻게 하면 바자회가 충주Y의 운동과 함께 의미있는 바자회가 될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역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곳에서 함께 만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생의 바자회가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충주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산물을 지인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이미 지역민들에게 익숙한지라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포부는 컸지만 지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도 어떻게 접근하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제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충주시민들이 함께 만나는 나눔과 만남을 위한 바자회로 다시 기획하게 되었다.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나는 생명살림운동

준비하는 순간부터 바자회 당일의 모든 일정과 정리하는 과정과 정산에 이르기까지 충주Y의 회원들이 모두가 하나하나의 손길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나누는 바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참여하는 가운데 기쁨을 갖는다. 바자회는 지역 내의 만남의 공간이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는 장이요, 행복한 성장이 있는 회원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보니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순 김장준비를 앞두고 진행되는 바자회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지역의 행사가 되



었다.

바자회를 앞두고 9월 초가 되면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바자회 일정과 판매품목, 목표액수 등을 논의하며 수차례에 걸쳐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계획한다. 늘 준비위원회의 첫 모임에서 올해는 어떻게 바자회를 진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티켓을 판매해야 하는지 등 여러 고민이 앞장서며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나 하루하루 바자회가 다가올수록 목표한 티켓이 누군가에게 판매되는 결과를 보며 이러한 고민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가는 기적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올해에도 다윗 왕이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방지에 새겼다는 지혜의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독이며 준비한다.

충주Y의 바자회를 준비하는 시즌에는 Y의 자원지도자들과 회원, 실무자들은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때로는 고추를 따고 깻잎을 따는 농부체험, 팔을 삶아 찹쌀 모찌를 만드는 떡집체험, 건어물과 젓갈 소분 작업을 하는 수산물가공 체험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다. 판매와 정산도 회원들이 함께 진행한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바자회를 만들어 가고, 그 준비과정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것도 느낀다.

충주YWCA의 바자회에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우

리는 우리의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바자회에 온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을 위해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만나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남의 기쁨이 있는 바자회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이다.

올해 가을에 예정된 사랑나눔 바자회를 조금 빨리 그려본다. 이른 아침식사를 마치고 남자 어르신들은 물건 진열을 돕고, 여자 어르신들은 찹쌀모찌와 전을 부치실 테고, 클럽 회원들은 각각 맡은 판매 부스에서 열심히 물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판매에 에너지를 쏟을 테고, 자원지도자와 실무자들은 발바닥에 감각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두가 주인인 잔치집의 모습을 말이다.

그리고 또 상상한다. 마련된 기금으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위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모두의 나눔이 충주YWCA 운동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충주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만남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충주Y 바자회로 초대합니다.

세계YWCA, 아프리카 내 여성폭력추방운동 가속화 선포

글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자리한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 치북. 2014년 4월 14일과 15일 한밤중 공립 중등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약 276명의 여학생들이 이슬람 반군에 의해 유괴당했다. ‘2014년 치북 납치 사건(2014 Chibok kidnapping)’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기반을 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인 보코 하람이 저질렀다. 50여 명의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해 도망해서 돌아온 이래로, 나머지 200여 명의 여학생들과 지금까지 납치당한 여성들 70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해, UN과 여러 나라가 지원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위한 세계YWCA와 UN의 VAW 운동

아프리카의 여성폭력 현상은 이렇듯 군사적, 무력 갈등과 연관되어 있고, 그 희생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성, 젊은 여성 그리고 어린 여성들이다. UN여성개발기금(UNIFEM: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2006년도 사업보고에는, 직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의 여성폭력 추방에 대한 선언

문이 실려 있다. “여성과 어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범세계적인 문제이다. 전 세계 여성의 최소 3분의 1은 일생을 통해 폭력과 성적 강요를 경험하는데, 가해지는 지인인 경우가 많다.”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은 당연히 범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6개 대륙 중에서 빈곤이 가장 심각하고 현황 파악이 가장 어려운 지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특히 빈번하다.

UN은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폭력추방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여성에 초점을 맞춘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세계YWCA와 많은 이슈를 놓고 협력한다. 아프리카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YWCA에 UN은 기금을 지원하며 운동을 세계 연합 운동으로 채택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 이들의 중점 운동은 대부분 교육,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폭력추방 운동, 그리고 모자건강권과 직결된 HIV/AIDS 추방운동이다. 아프리카 국가 YWCA들은 폭력추방운동(VAW)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을 정도다. 여

성의 인권 침해가 만연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건강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사건을 짚어보며 아프리카에서의 VAW운동의 중점을 살펴본다.

우선, HIV/AIDS추방 운동이다. 들리기는 독감 추방, 에볼라나 메르스 추방 정도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리기 쉽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서쪽 지방에서 창궐해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에볼라와는 다르다. 1200만 에이즈 환자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전체 여성의 70퍼센트가 끔찍한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성적 강요와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으로 여성들은 다중으로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다. 세계YWCA는 UN기금은 물론, 특별히 수년간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HIV/AIDS 추방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조혼 추방 운동이다. 이는 어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치명적인 폭력이다. 세계Y 사무총장에 의하면, 지난 5월 초, 나이지리아 소코토(Sokoto) 지역에 사는 9살 난 소녀가 강제 결혼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18세 이하 어린 소녀가 결혼하는 비율이 70퍼센트로 세계 최다이다. 여학생을 납치한 무장단체들의 위협이 심한, 나이지리아에 가장 만연한 악습이기도 한데, 20대 결혼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76퍼센트가 18세 이하에 결혼해야 했고, 그들 중에 28퍼센트가 15세 이하에 결혼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6명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당연히 어린 엄마와 아기는 모두 HIV/AIDS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성적으로 어린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습이라는 결의로, 세계YWCA와 UNICEF, 그리고 CEDEW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바 UN 본부에서 이에 관한 포럼을 열었고, 현 세계YWCA 이사인 나미비

아 사무총장이 실제 상황을 보고했다. 나랏자이 굼보즈 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은 포럼 결과를 정리한 어린소녀 강제결혼 반대 결의문을 UN에 제출했다.

셋째, 여성생식기 절단(FGM, Female genital mutilation)추방 운동이다. 역시 UNICEF 보고에 따르면 FGM 희생 여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소말리아, 기니아, 이집트 등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단연 많다. 태어나자마자, 혹은 사춘기에 이 의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 5살 이내에 절단 수술을 어떤 보건 위생 시설도 없이 강제로 받는다. 피를 흘리고 다니는 건 물론 이로 인한 염증과 역시 AIDS에 감염되기 쉬운 상황에 놓인다.

납치당하는 여성들

그리고 넷째, 여성과 소녀 납치(Trafficking women and girls) 추방이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달 5월초, 나이지리아 국군은 납치범들이 억류하고 있던 700여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구출했다. 그런데 그 중 200여명이 임신 상태였다. 무장 납치자들에 의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이다. 세계YWCA는 즉각, “나이지리아 소녀들 납치와 구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을 촉구했다.

여성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기인한다. 사회가 묵인하는 여성에게 가하는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 내의 폭력들, 그리고 잘못된 전통적 문화적 강요로 인해 여성이 감내해야만 하는 폭력. 아프리카를 포함해, 이렇게 폭력당하는 지구촌 전역의 여성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UN은 2000년 10월 31일 결의안인 UNSCR1325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각 나라 행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폭력추방을 위해, 이제 이 결의안을 전 세계 국가들이 정책으로 실현하는 일만 남았다.

1) 참고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 YWCA가 있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콩고, 우간다, 케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베냉, 르완다, 부룬디, 감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모잠비크,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 카메룬,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과 마우리티우스 섬에 이르기까지 20여 개국이 넘는다.

세상을 치유하는 기독교

글 | 이훈삼 목사(성남주민교회 담임목사)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놓은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은 15세기의 길(비아 콰트로첸토, Via Quattrocento)에 놓여 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코, 조각가 도나텔로, 그리고 화가 마사초는 그 길 위의 대표자들이다. 1401년에 태어나 27세에 요절한 마사초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안에 그린 '삼위일체'(1424~1427년 사이)를 통해 처음으로 회화에 원근법을 적용한 화가다. 마사초에 의해서 회화는 비로소 평면에 공간을 획득하였고, 관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대가들은 마사초의 그림에서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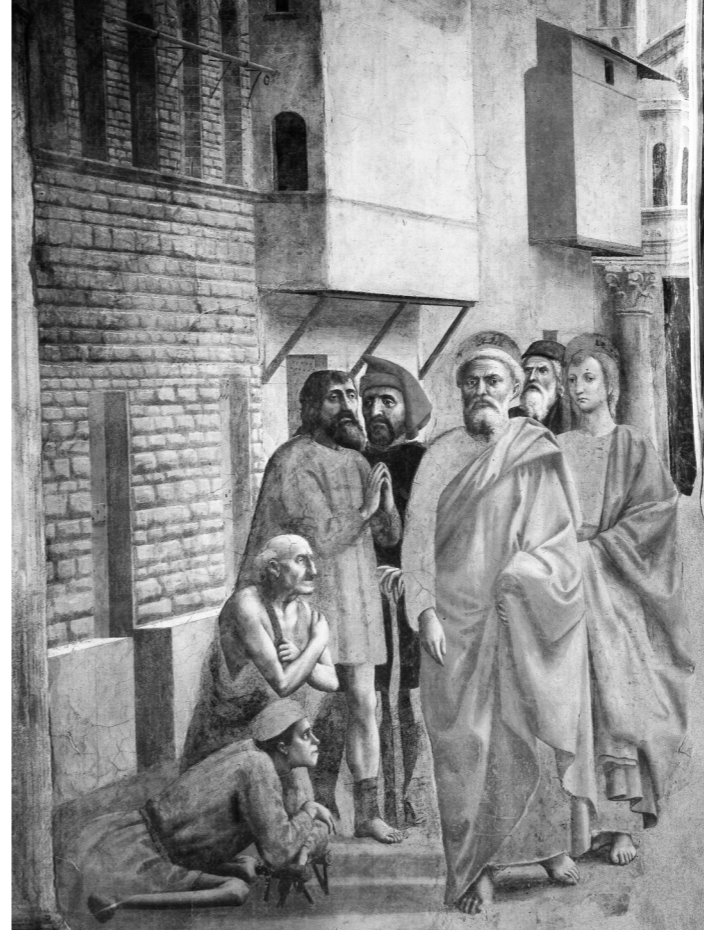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부속 브란카치 예배실



시대의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왼쪽 맨 위에 마사초의 '낙원으로 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그 맞은편에 마솔리노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있다. 이 두 작품은 자리처럼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를 가름한다.

피렌체 아르노 강을 따라 남서쪽으로 걷다보면 1422년에 현당한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이 나온다. 건물은 외관상 썰렁하고 허름하다. 내부도 별로 특별한 건 없다. 18세기에 화재로 대부분의 작품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당 옆의 부속 건물인 브란카치 예배실에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은 작품들이 제단 벽을 장식하고 있다. 바로 마사초가 그린 '낙원으로 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일련의 프레스코(fresco, '신선하다'는 뜻,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한 벽화)다. 제단 정면 오른쪽 아래에 오늘의 그림이 있다. 얼마 전 열흘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피렌체를 떠나는 날에서야 카르미네를 찾았다. 만약 그냥 왔다면 나는 한없이 자책했을 것이다. 피렌체는 그런 곳이다. 떠나는 순간 다시 발길을 돌리고 싶은 그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였다. 심지어 병자들은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자신에게 덮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행전 5:15). 그 간절함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다르게 하였다. 마사초는 이 장면을 포착하였다. 상류층 인물들만 그림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마사초는 과감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화면에 옮겨놓았다. 배경도 성전이나 궁전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지역이다. 그 거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 베드로는 제자 중




마사초(Masaccio, 1401~1428년), 그림자로 병자들을 고치는 성 베드로, 230*160cm, 1426~7년, 이탈리아 피렌체 카르미네 성당 브란카치 예배실 (그림 출처 : Masaccio, Giunti Industry Graphic, Florence, 2003)

연장자였기에 늘 흰 머리와 흰 수염의 노인으로 묘사된다. 그 권위는 그대로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로 전이된다. 반면 요한은 늘 어리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된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네 명이 기다리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빨간 모자를 쓴 중년의 남자, 맨발에 두 손을 모으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남자, 상반신을 거의 드러낸 채 무릎을 꿇고 양 팔을 모은 가난해 보이는 노인, 그리고 마른 막대처럼 앙상한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아 팔 받침대를 괴고 큰 눈으로 바라보는 앓은뱅이 청년. 화면 앞쪽으로 울쭉욱 이들의 상태는 위중하다. 이 길을 주님의 제자가 걷는다. 믿음과 능력, 사랑과 애처로움으로 걷는다. 제자들의 그림자가 앞쪽 가장 힘든 두 병자에게 걸쳐있다. 이제 이들은 곧 자리를 걷고 일어날 것이다. 평생 이들을 옮겨매던 질병과 가난의 삶을 훌훌 벗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을 누릴 것이다. 초대교회는 상처 입은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을 간직하고 있었다.

2000년이 지난 세상은 구석구석 여전히 아프다. 세월호의 고통이 1년이 훌쩍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어떤 유가족 부녀는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500km를 세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면서 4개월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아 돌로로사다. 예상치 않았던 메르스의 죽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감기'의 무서운 상상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모두 공포에 갇혀 있다.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향한 몸부림이 안쓰럽기만 하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6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장 밖을 맴돌면서 날마다 절망과 싸우고 있다. 죽음의 송전탑 공사를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밀양과 군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너무나 명백한 차별대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죽여 흐느끼고 있다. 청년 세대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107년 만의 6월 상순 최고 기온과 기나긴 가뭄으로 땅과 강이 타들어가고 있다. 세상이 피조물의 탄식으로 울렁이고 있다. 만물이 구원의 주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비처럼 절실한 때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만이라도 비추어 죽음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의 후예인 오늘의 기독교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기독교는 본질을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생명과 권능의 자리로! 기독교는 탄식하는 피조물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본받아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와 기독교단체 됩시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 130주년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담임목사를 지난 6월 3일(수)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부회장과 이진용 위원이 함께 만났다. (정리: 편집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동제일교회가 130년 전, 조선에 개신교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성장한 여성지도력을 이 사회와 YWCA에 헌신하셨지요. 또한 YWCA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의 분유보내기 운동에 매년 성도들의 귀한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아펜젤러-언더우드 국제학술포럼이 있었지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정신과 현대교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올해 2015년은 한국에 개신교가 전해진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와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함께 최초로 복음을 들고 이땅을 밟은 지 130년이 되었지요. 20대 중반이었던 두 선교사들의 큰 꿈은 우리 민족에게 씨앗이 되어 한국교회가 이천년 기독교

교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가 각각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새문안교회는 그간 설립자가 세운 선교정신을 기리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실천적이고 복음전도적인 길을 걸었던 선교사들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은 두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두 신학교(드류대학교와 뉴 브린스윅 신학교)와 한국의 새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가 선교역사를 회고하고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를 다짐하며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심포지움에서 앞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두 선교사님의 정신은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요?

이번 심포지움은 두 교회의 경계를 넘어 감리교와 장로교의 소통입니다. ‘연합하여 선교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울타리를 내리고, 소금처럼 녹아 이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육신적 사역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YWCA 창설자 중 한 분이신 김활란 박사께서 정동교회 출신으로서 한국YWCA는 물론 이 나라의 여성지도력으로 배

출되었습니다. 또한 고(故) 문태임 회장께서도 정동교회에서 이 땅의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Y의 지도력이셨습니다. 기독교성의 교회 내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정동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근대 엘리트들의 계통을 형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30년도 정동제일교회 엡윗(Epworth)청년회 회장이 김활란 박사였는데, 당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화와 배재학당의 젊은 신앙인들이 이 사회에 소금처럼 녹아 예수님을 닮아 성육신적 사역을 감당한 셈이지요. 당시 정동교회 주요 재직이었던 평신도 지도자들은 기독교 계열의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는데 홍예스더, 유각경, 김폴린, 조병옥 역시 교회활동과 기독교계의 정치·사회활동을 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성들은 교회 안의 봉사는 물론 사회적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 주셨던 섬김과 종노릇의 자세로 세상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YWCA가 1990년대 이후로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정동교회가 특별히 여러 구제와 선교 사업이 많은 가운데도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 모금에 함께 동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이면 정동제일교회는 ‘북한어린이에게 생명을’ 이란 모토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과 기도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늘 사회적인 실천으로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에 이 땅의 가장 소외된 영혼들인 북한어린이를 돌아보는 데에 한마음이 됩니다. 모금을 알리며 북한 땅과 주민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로 ‘북한어린이돕기’를 시작하는데 한국YWCA가 그간 이 사회에서 공신력 있게 활동해 왔기에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도 단체와 전달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올해는 네팔 대지진으로 교회에서 다른 모금 진행도 많았는데,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액으로 1,200만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200여 만원을 유치부에서 모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3월부터 3개월간 식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교회학교에서 받아간 북한어린이 모금 우유팩에 모금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우선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자란 기독교 어린이들에게 이 나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시대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남 북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세대는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하지요. ‘사람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회의 3만 북한이탈주민을 복음화의 기수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사회에서조차 차별과 소외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을 통일시대의 요셉으로 길러내는 마음으로 한 국교회와 이 민족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로 한국YWCA가 93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준비하는 YWCA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한국YWCA의 설립 정신, 즉 1922년 일제 치하에서 민족과 이 땅의 여성을 위해 세워진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이 역사를 앞으로 늘 반추하며 활동하는 단체이길 바랍니다. 애국적이며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구제와 봉사, 북한복음화를 포함한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사회에 성육신적인 섬김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이길 바랍니다. 기독교성을 기반으로 단체에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오래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하여 YWCA 정신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정신을 마음에 새긴 YWCA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글 | 박신영 (창원YWCA 어린이집 원장)

올해에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어린이돕기모금 캠페인이 YWCA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다. 매년 5~6월에 나, 가족과 이웃을 주제로 활동해 온 창원YWCA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Y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는 날로 인식하기 보다 북한에 사는 친구들을 생각해보고, 나눔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계기가 된 6.25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의 북한어린이돕기모금운동은 6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몇 해 동안 가정통신문을 통한 모금활동만으로 진행하다보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눔으로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여 올해에는 부모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평화의 조각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화의 조각보 제작에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7세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바느질을 해 나갔고, 한국YWCA의 평화운동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어린이돕기모금운동 캠페인을 시작하며 YWCA어린이집 각각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이 전개되었다. 북한어린이돕기 영상 시청을 비롯하여, 각 반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활동 중 또래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은 질병과 영양부족으로 야윈 북한에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하였다.

창원YWCA어린이집에서는 특별히 '북한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그리기로 표현해 보았다. 맛있는 음식, 예쁜 옷과 가방 등 아이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물건들과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창원YWCA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북한에 사는 친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아직은 아이들의 표현이 그림 그리기, 편지쓰기, 동전 모으기 등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알고 가족과 친구를 이해하며, 지역사회를 알아갈 때 북한 친구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리라 소망한다.

창원YWCA어린이집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그 가르침대로 아이들이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5월 1일 ~ 5월 30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민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기동,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은정,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천진, 이향재, 이행자, 이해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순, 정용,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주락현, 최수산나,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황홍백(126명)	1,806,000
개인 기부	조규성, 최한나, 박복례, 김미, 방원철, 조예성, 윤세아, 김은자, 전주연	542,090
협력교회	희성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정동제일교회, 한양대여성교회	12,192,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 신우회	100,000
회원YWCA	성남, 순천	166,490
합 계		14,806,580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모금 현황

(2015년 5월 1일 ~ 6월 16일)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모금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액 전액은 네팔YWCA로 전달되어 긴급구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연합회	캠페인 및 모금	5월 아침기도회, 5월 실행위원회, Y회관 로비 모금함	572,550
	기관, 단체	은학의집, 우이제일교회(안정희), 캐나다 새순 장로교회(최영조), 반포침례교회(이주영)	4,158,167
	개인	김영자(실행위원), 김형남(군산직할지부 운영 위원장), 윤세아(박효정), 이남희, 정혜숙	350,000
	<소계>		5,080,717
회원YWCA	본부	강릉, 고양, 광양, 김해,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익산, 인천,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평택, 하남 (총34개 회원YWCA), 군산직할지부	22,166,940
	부속시설, 기타	성남Y 어린이집,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부지역 아카데미	380,000
	<소계>		22,546,940
합 계		27,627,657	



6월 월례아침기도회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제3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연합회 소식

6월 월례아침기도회

6월 1일(월)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6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있었다. '통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조경열 목사(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전했다. 민족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6월 첫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북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했다. 또한 52개 회원YWCA의 10만 회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세상을 꿈꾸며 고리1호기 재가동 연장 포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5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1박 2일동안 대전 라온 컨벤션에서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가 열렸다. 회원Y 사무총장 15명과 연합회에서 참석해 2015 지역탈핵운동 과제 논의, 기사중사자 고용개선법률안, 대학청년Y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조와 활성화 방안 등 중점운동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서울 명동 연합회 앞과 전국 회원YWCA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60차(천안Y), 61차(고양Y) 등 회원Y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고 폐쇄를 위한 서명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6월 9일(화) 연합회 주관의 제63차 캠페인은 메르스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국민안전시스템의 부실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안전불감성을 규탄하며 침

묵 피켓 시위를 벌였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핵사고! 고리1호기 폐쇄하라!"와 "2029년 핵발전소 36기, 국민생명 담보하는 원전 확대 정책 중단하라!",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생명과 전국민의 안전문제, 고리1호기 폐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제3차, 제4차 여성주의 연구모임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인지 관점에서 본 법제·개정 운동'을 주제로 여성주의 연구모임이 진행됐다. 5월 12일(화)에는 김양희 젠더엔리더십 대표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양성평등 조례'를 주제로, 5월 27일(수)에는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4차 연구모임에는 대전Y, 부천Y, 수원Y, 안양Y 실무자들과 부천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2015 동일임금의 날 정책워크숍, 거리 캠페인

5월 23일(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동일임금의 날 정책워크숍'이 국제사회 동일임금에 대한 선례공유와 남녀동일임금 운동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남녀동일임금,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국내 활동 사례 발표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

회를 출발하여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동일임금의 날 거리 캠페인'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세대 간 연대를 보여주는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빨간 가방과 산타 모자를 쓰고 동일임금의 날 뱃지와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에)

제3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5월 27일(수) 오후 2시 연합회 강당에서 제3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이 '여성, 청년에게 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제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여성, 청년에게 일은 무엇인가?'와 조금득 청년연대는, 난곡예술창작소 이사장의 '청년은 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로 진행됐으며 여성과 청년의 노동 현실을 통계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짚어보았다. 콜로키움의 주요 내용은 생명비전연구소 웹진(<http://blog.naver.com/ywcama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에)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 국제여성 평화회의

5월 24일(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5월 20일부터 시작된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도라산역을 통해 남으로 내려온 글로리아 스타이념, 리마 보위 등 세계적인 여성 평화운동가들로 구성된 국제평화여성단을 환영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1,945명의 걷기대회 참가자들도 임진각 일대를 함께 걸으며 평화걷기에 동참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연합회 주관의 평화기원 문화행사는 '열림, 살림, 울림'의 의미를 담아 스윗소로우의 무대, 경기지역 여성합창단, 해피 바이러스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다음날인 25일(월)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국제평화여성단이 참석하는 평화회의를 통해 평화걷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컬러화보 참조)

재미있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연합회는 금융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의 첫 시작으로 지난 5월 18일(월) 인천 신석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을 만났다. 씽크머니 우수강사로 선정된 대구Y 박윤정 강사가 미술을 이용한 금융교육을 선보여 전교생이 소비의 우선순위,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씽크머니의 착한 기업이 프로그램 시간에 직접 생산, 판매, 소비, 저축, 기부 활동을 체험했다. 아이들이 만든 냉장고 자석, 비즈팔찌를 모의 화폐로 사고 파는 활동을 한 후 씽크머니 통장에 직접 저금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금융이나 경제가 어른들만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과 가까운 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Y-틴 운동 활성화를 위한 회원YWCA 자원지도자와의 만남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단체 선정 이후 Y-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Y 자원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창원Y(4월 14일), 수원Y(4월 22일), 충주Y(4월 27일), 전주Y(5월 22일)의 청소년부 자원지도자들과 연합회 실행위원이 함께 모여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Y-틴의 현황과 위원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2015년 청년평화포럼

대학·청년Y 회원들이 직접 기획한 'YWCA 세대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이 북·중부지역(장소: 안양Y)과 동부지역(장소: 마산Y)에서 5월 30일(토)에 각각 개최되었다. 세대간 소통이 목적인만큼, 자원지도자, 실무자, 청년들이 다양하게 모여, 북·중부지역 참가자 20여 명은 '이성교제'라는 주제를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사회현상과 접목하여 논의하였고, 동부지역 참가자 14명은 '결정장애'를 주제로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5년 청년평화포럼은 세대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청년기행으로 진행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YWCA 청년기행'은 7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전반 1박 2일은 각 회원Y 청년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후반 1박 2일은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부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Y-틴 스승의 날 축하, 활동 소개
 강일여고 Y-틴은 5월 15일(목)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출근하는 선생님 한분 한분께 달아 드렸다. 작은 꽃으로 큰 기쁨을 드리며,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 16일(토)에는 프리마켓이 열리는 단 공연장 일대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일여고 Y-틴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소개와 청소년보호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 모니터링 교육
 5월 23일(화)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에 관심있는 이사, 위원,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강릉 YWCA는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동해YWCA | 안지원 간사

일일차집 열어 기금 마련
 5월 21일(목) 현진관광호텔 5층에서 일일차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Y의 여덟 번째 일일차집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상과 급성영양장애로 고통받는 북한어린이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아진 정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소중한 에너지로 쓰일 것을 약속드렸다.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걷기 축제 '다함께 돌자! 남산 한 바퀴'
 2015 시민건강 걷기 축제를 5월 30일(토)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었다. 8시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신나는 준비체조 후에 남산순환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걷기 코스 중간 중간에 탈핵존, 포도 존 등이 기다리고 있어 즐거움을 더했다. 꽃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손을 잡고 걸으며 가족,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속초YWCA | 정인숙 간사

평화통일교육
 6월 2일(화) 살롬교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레사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이웃나라인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중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로 간구했다. 또한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에는 춘천YWCA, 동해YWCA, 강릉YWCA 회장과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캐나다Y 회장 방문
 5월 21일(목) 오전 10시에 세계Y 원영희 이사와 캐나다Y 회장플레트가 인천Y에 방문하였다. 캐나다Y와 인천Y에 대한 소개와 기관 라운딩을 통하여 각 나라와 지역의 YWCA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YWCA간의 국제적인 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춘천YWCA | 진소정 차장

EM생활환경 교육 실시
 5월 14일(목) 동내초등학교로 '찾아가는 EM교육'을 진행하였다. 환경오염이 날이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미생물 EM에 대해 알리고, 생활 속에서 EM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습함으로써 환경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쌀뜨물을 이용한 EM발효액 만들기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EM비누 만들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
 5월 19일(화) 부천상원고등학교 학생회와 함께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준비한 주먹밥을 함께 나누면서 북한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각 반마다 우유저금통을 비치하여 함께 정성을 담기로 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주먹밥 나눔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상원고등학교 학생회가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든든하고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제11회 난쟁축제 '정의를 정의하다'
 5월 30일(토) 키다리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난쟁 축제 '정의를 정의하다'를 개최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정의, 진상규명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세월호, 위안부), '탈핵 바람과 햇빛의 나라로', '정의를 짚다', '손으로 그리는 JUSTICE' 등의 12가지의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일상에서 정의롭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고양시 관내의 청소년들의 공연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당일 행사의 수익금은 북한어린이돕기에 기부했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Y-틴 인준식
 5월 9일(토) Y-틴 동아리회원과 청소년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15년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Y-틴 하수진 회장(창현고, 18세)의 사회로 1부 예배를, 홍승화 회장의 환영사로 2부 인준식이 시작되었다. 이번 인준식에는 13개 Y-틴 동아리를 인준하고 12명의 지도교사, 17명의 청소년지도자를 임명했다. 금번 인준식을 기점으로 Y-틴 회원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6월 5일(금) 오후 2시 안산글로벌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이사와 실무자,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최예배 이후 'YWCA의 비전과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천진 목사(한양대학교 교목실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회원증모운동은 7월 17일까지 회원 1,800명을 목표로 40여 일간 진행된다.

안양YWCA | 안정희 팀장

프리마켓 '행복상회'

안양Y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5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하나로 5월 27일(수)에 프리마켓-행복상회를 열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훈련생들에게 20주년을 알리고 자신이 참여하는 훈련을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훈련생은 직접 만든 작품과 아나바다 물품을 기증하였고, 조리과정 훈련생은 밑반찬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등 풍성한 행사로 진행됐다. 행복상회에서 얻은 수익은 안양시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 20주년 기념행사로 추억의 사진 콘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7월 15일에는 경력단절을 극복한 여성들의 토크쇼 '톡잡톡'이 진행된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일드림(DREAM) 여성채용박람회' 개최

의정부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드림 여성채용박람회'를 5월 29일(금) 의정부Y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일드림 여성채용박람회'는 여성들을 깨우는 WAKE-UP, 여성들을 세워주는 STAND-UP, 여성들의 비전을 향한 FLYING-UP의 3-UP 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채용 박람회이다. 다양한 직종의 40여 개 업체가 현장면접업체 또는 알선희망 간접업체로 참여하였고 취업을 희망하는 200여 명의 구직자가 내방하였다. 여성구직자에게 일대일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기회와 구직정보를 제공하였고, 직업카드

를 이용한 진로상담, 미술심리상담, 토탈공예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였다.

중부

논산YWCA | 권연정 간사

어린이와 함께하는 '지역을 살리는 말랑말랑한 주말체험' 청소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토) 25명의 초등학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을 살리는 말랑말랑한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청소년기 식습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크푸드의 실체를 파헤쳐라'는 주제의 첫 수업은 지역의 전문가와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탄산음료 2점과 불량식품 8점을 직접 재료에 따라 당 함량지수 실험과 원산지 불명 저가 불량식품의 원료 성분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좋은 먹거리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전YWCA | 김지찬 팀장

여성가장 및 결혼이민여성돕기 아나바다 장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5월 28일(목) '여성가장 및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진행했다. 직업훈련생, YWCA 회원들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심시일반 기부해 판매했다. 먹거리 장터를 열어 다양한 즉석음식과 Y 회원들이 직접 만든 파김치 등 밑반찬 코너도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60여 명의 여성가장과 결혼이민여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금년에도 아나바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여성가장 및 결혼이민여성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탈핵강의 '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5월 28일(목) 제천YWCA 평생교육원에서 자원활동가, 여성단체관계자, 시민, 실무자 등 50여 명이 모여 '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라는 주제로 연합회 탈핵 담당 이윤숙 부장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다. 이날 강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환경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및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남한강 물길 따라 체험활동

어르신들과 함께 '남한강 물길 따라 <영월편>' 체험활동을 다녀왔다. 이날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돌아보고,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의 선암마을을 찾아가 EM 흙공과 EM 발효액을 투하하며 수자원의 소중함을 재인식, 물 살리기 운동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서부

광주YWCA | 손유영 부장

오월 Y시민포럼 및故박용준열사장학금전달식

5월 13일(수) 오후 2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Y시민포럼을 개최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제35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故박용준열사 추모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 보육시설에서 성장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2부 시민포럼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5.18'이라는 주제로 당시 전남 매일신문 사진부 차장으로 재직하며 5.18 민주항쟁의 생생한 역사를 사진에 담은 나경택 강사를 모시고 사진을 통한 역사 재조명 및 5월 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부 행사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보라데이 캠페인

남원Y가정폭력상담소는 5월 30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남원 사랑의광장에서 보라데이(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보라데이는 '보라(LOOK)'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TV에서만 접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공감의 필요하다.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LOOK AGAIN)'라는 미션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시작을 모두 함께 하길 기대한다.



목포YWCA | 박수현 부장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하는 해피버스테이 케이크교실

목포YWCA 꿈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는 SPC행복한 재단 후원으로 5월 22일(금) 강당에서 아동 18명과 함께 해피버스테이

이 케이크교실을 가졌다. 이 날 아동들은 SPC 임직원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케이크에 생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체리와 초코렛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등 케이크만들기 시연과 5월 생일을 맞이한 4명의 아동들을 위해 생일축하 파티와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티시어와 함께 하는 케이크교실을 통해 아동들이 파티시어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애들아 아침밥 먹자’

5월 27일(수)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먹기 운동 ‘애들아 밥먹자’ 행사를 펼쳤다. YWCA회원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학부모회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의 확산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밥 중심의 식생활 습관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쌀과 유기농 야채로 만든 주먹밥과 음료를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침밥을 꼭 먹고 등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올해로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2015 한국YWCA 정책교육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순천Y)에서는 5월 15일(목) 광주 YWCA 대강당에서 2015 한국YWCA 정책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부지역 Y회원 100여 명이 모인가운데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전남여성프라자 손문금 원장이 ‘성주류화 정책과 YWCA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주류

화 실천에서 무엇을 할 지에 대해서 서귀포YWCA 이신선 사무총장의 강의를 통해 사례들을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 올해 서부지역 회원YWCA가 일제히 진행할 성인지와 성주류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분 중점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여수YWCA | 박선주 간사

2015 재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5월 23일(토) 흥국체육관에서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2015 재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진행했다. 지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이 행사는 YWCA 목적문 중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라는 문구에 대한 실천의 장이 되었다. 개회식 퍼포먼스에서는 다문화아동,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 30여 명이 출연하여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을 부름으로써 인류는 하나, 세계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깜짝 이벤트로 네팔지진 피해 돕기 플라워마켓을 진행하여 다문화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1,0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성인지 여성정책 제안 포럼 성황리 진행

5월 28일(목) ‘제4회 전북여성센터축제’에서 성인지 여성정책 제안 포럼이 진행됐다. ‘성 주류화 전략 추진에서 역할 찾기’라는 주제로 조혜련 박사(젠더N다양성센터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 지역을 근거로 한 통계를 통한 성 평등한 지역사회, 지역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의사결정 참여 등의 순서로 토론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전주Y는 탈핵서명운동, 통일인식 개선 캠페인 및 통일 소망나무 쓰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다. 여성젠더축제가 지역 여성계의 상생과 화합, 그리고 양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제주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주 시내 방과후아카데미 4개, 지역아동센터 9개 등 총 13개의 기관에 15명의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파견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여러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자존감과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견 기간 내에는 방문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동부

거제YWCA | 홍윤정 팀장

사랑·나눔 바자회

5월 30일(토)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거제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사로 청소년 2인 1조 23팀이 신청,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품을 판매했다. 거제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참가자를 위한 혈압, 혈당체크에 의료서비스로 자원봉사로 동참했다. 행사장에는 먹거리와 EM 등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은 다문화가족지원과 노인대학 무료급식과 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청소년 장학금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네팔지진 피해돕기를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5월 22일(금) 센터 2층에서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구직여성 만남의 날을 실시하였다. 지역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 현장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기업체 9곳과 구직자 90여 명이 참여하였다. 구직자에게 증명사진을 위한 메이크업과 사진촬영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

6월 1일(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남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개소식을 가졌다. 꿈드림은 ‘꿈 = 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이다. 개소식은 대구YWCA의 6층 강당과 3층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임병헌 구청장(남구청), 배문현 의장(남구의회), 정식원 경찰서장(남부경찰서), 대구YWCA 최정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진, 청소년 단체 등의 내빈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석했다. 남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 꿈을 펼치는데 꿈드림 센터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하하는 귀한 자리였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동부지역 대학·청년Y 세대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 동부지역 대학·청년Y 회원이 모여 청년과 평화, 대학생·청년들의 삶, 생각, 고민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5월 30일(토) 마산YWCA 회관에서 진행하였다. 대구Y 손지수 회원의 진행으로 10여 명이 ‘햄릿 신드롬’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남대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고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자신의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러한 현상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부정적인 결과에 미리 겁을 먹고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실시

5월 20일(수) 오전 7시부터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정문에서 등교길 청소년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떡과 유기농 과일, 우유를 제공하며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어 건강한 먹거리에 소홀히 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아침식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YWCA의 생명운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산 YWCA | 박경하 간사

인형극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진행
5월 14일(목)부터 7월 2일(목)까지 지역사회에서 경력단절, 은퇴, 미취업 등으로 고립된 중, 장년층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형극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인형 직접 제작하기, 인형극 대본 만들기, 녹음 대본에 따른 인형극 연기 연습하기, 인형극 무대 만들기 등의 과정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면서 인형극을 통해 마음을 보듬어 주는 정서적인 교감을 느끼며, 교육이 끝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장애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 YWCA | 김다혜 간사

제16기 환경지기단 발대식 및 ECO-SCHOOL
5월 16일(토) 울산Y 2층 강당에서 환경지기단 발대식과 에코 스쿨 첫 번째 수업이 진행되었다. 환경지기단은 초등학교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체험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밝은 분위기로 시작되어 YWCA 및 환경지기단 소개, 15기 환경지기단 활동영상 보고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발대식이 끝난 후, ECO-SCHOOL I 나무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나무를 이용한 재활용 작품 만들기' 시간도 함께 가졌다. 6월 환경지기단 활동으로는 ECO-SCHOOL II "해양의 소중함-조개껍질을 이용하여 캐릭터 만들기" 라는 주제로 6월 20일(토)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 YWCA | 고명정 팀장

진주Y다문화도서관 '단비' 책잔치 참여
진주Y 다문화도서관 '단비'는 진주시가 주최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진주 북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였다. '책 속으로 들어간 진주'라는 주제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 책 잔치에 단비도서관은 3가지 부스 -다문화이야기보따리, 아시아달은꽃이야기비교전시회, 우리가 꿈꾸는 탈핵세상-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책과 쉽게 접근하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과 더불어 독서캠페인을 통해 독서가 생활화된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됨으로써 진주의 역사와 북 페스티벌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를 느끼게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해 YWCA | 정유민 간사

초록지킴이 환경기자단 발대식
5월 16일(토) 오전10시 제일진해교회 제일문화관 4층 새가족실에서 초록지킴이 환경기자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가르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일진해교회 서성한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YWCA 소개, 사업취지와 진행일정, EM교육,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매월 1회 진행하며 행사 후엔 포토폴리오를 제작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창원 YWCA | 이소영 간사

청년, 청렴! 한 마음으로 외치다!
5월 23일(토) 청렴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청렴기자단 첫 모임을 가졌다. '지방의정 참여와 의정활동 평가'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교수의 강의를 듣고 사전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무관심이 청렴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생들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청렴기자단은 도의회와 시의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며, 감시가 아닌 관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



포항 YWCA | 송근선 간사

살림돌보미 보수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5월 26일(화) 오후 6시 포항Y 강당에서 살림돌보미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수교육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박순연 소장을 강사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신고절차, 예방지침, 상담 및 교육 소개 등을 강의함으로써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폭력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대처방법,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식 변화를 도모했다.

영어로 익히는 눈높이 금융 교육

Think Money 영문 어플리케이션 출시

Think Money란?

올해 10주년을 맞는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씽크머니'는 한국 씨티은행이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과 셀프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Think Money 영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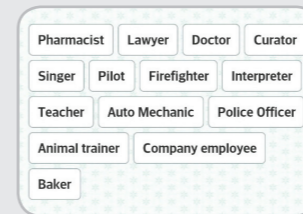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겪게 되는 3단계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돈을 버는 단계와 돈을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돈과 관련해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단계

Making Money

직업이란 무엇인지, 소득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이의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단계

Managing Money

돈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돈을 절약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저축할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단계이며, 활동들을 통해 여태까지의 소비 습관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단계

Using Money

지불의 정의와 다양한 지불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나눔(Sharing)의 개념과 어휘 및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이의 물건 등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재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나눔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함께 상상해 본다면, 앞으로 아이가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한편,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프로그램은 2015년에 저소득 및 소외 계층의 금융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찾아가는 씽크머니’를 운영하여, 특히 산간·도서지역 거주 청소년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방법:

YWCA-CITI Think Money 영문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WCA CITI” 또는 “ThinkMoney”로 검색하면 무료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iOS 버전은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